90. 4. 24 〔1988.6.18제3종우편물(가)급인가〕 제600호

피코노동자 본사앞서 '풍물시위'

"떼먹은 돈 내놔라" 동포들과 시가 행진

미국언론 큰 관심…차량들도 경적 지원

밀린 임금과 퇴직금지불 등을 요구하며 미국에 원정시위하러 온 한국피코노조의 유점순 위원장 등 3명의 노조원들과 재미동포 등 50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2시(현지시각)부터 7시까지 뉴욕주 시라큐스의 피코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뉴욕 청년학교 소속 풍물패 '비나리'의 기원제로 시작된 이날 시위에서, 피코노조의 유점순 위원장은 성명서를 낭독, "우리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밝히고 "한·미 두나라의 진정한 우호를 위해서도 피코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금수강산 빌려주고 머슴살이 웬말이냐' '한반도가 뉘땅인데 돈떼먹고 도망가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날 시위장에는 시라큐스 지역의 신문·텔리비전 방송들이 나와 피코 노조대표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피코사 직원들은 창문을 통해 시위광경을 지켜 보기도 했는데, 시위자들은 이들에게 같은 노동자로 동참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곳 시라큐스 지방지의 보도를 통해 피코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시위대를 지날 때 차량의 경적을 울리며 지원을 보냈고, 이곳에 사는 동포들은 음식을 준비해 와 시위대를 격려했다.

시위대는 이날 오후 6시께 '비나리'의 풍물을 앞세우고 피코 본사에서 인근 대형상가까지 2마일을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이날 시위에는 필라델피아 워싱턴 뉴욕 등에서 온 50여명의 동포, 인권단체 미국인 등이 참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저녁에는 뉴욕 퀸스의 청년학교 강당에서 60여명의 동포, 미국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피코노동자들을 격려하는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유점순 노조위원장은 백골단의 잔인한 진압 등 지난 1년동안의 투쟁과정을 눈물을 흘리며 설명하면서 동포들의 관심과 성원을 호소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지난 13일, 피코 본사의 히치콕 사장과 협상 때 사장이 오히려 피코노조 원들을 범죄자로 매도했다고 전하고, "미국에 직접 와서 미국인들에게 피코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면 그들도 끝내는 굴복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퀸스정의생활 네트워크의 빌 헤이글 의장과 뉴욕 신문 길드의 키 마틴 위원장도 참석, 연대사를 발표했다.

〈워싱턴=정연주 특파원〉